차　　례

머 리 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소년들이 학생시절에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져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사회주의건설자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학생시절에 고상한 도덕품성을 가져야 한다. 높은 혁명정신과 함께 사회주의도덕품성을 가져야 앞으로 군사복무도 잘할수 있고 사회에 나가 강성대국건설에도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과정을 마치게 될 6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도덕과 법》과목학습을 잘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6학년에서는 혁명과 인생관에 대한 지식, 사회주의법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혁명의 본질과 인생관의 본질을 잘 알아야 인생의 시작과 혁명의 걸음마를 잘 뗄수 있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변함없는 신념과 의리, 량심으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사회주의법에 대하여 잘 알아야 사회주의사회의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킬수 있게 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모든 학생들은 《사회주의도덕과 법》과목학습을 잘하여 높은 혁명정신과 사회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혁명의 한길에서 청춘의 참된 리상과 삶을 꽃피워나가야 한다.

제1장. 혁명과 도덕

제1절.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입니다.》

혁명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다.

자주성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성질이다. 다시말하여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모든것의 주인으로 살려는 사람의 성질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게 한다는것이다. 자주적인 생활은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모든것의 주인으로 사는 생활이다.

조선예술영화 《우리가 만나는 곳》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인혜는 등사원지를 받아올데 대한 지하혁명조직의 임무를 받고 련락장소를 찾아간다. 그러나 가정주위환경때문에 인혜를 믿을수 없다고 생각한 련락장소책임자는 등사원지를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

이로 하여 동요하면서 고민하는 인혜에게 지하혁명조직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상이라는건 피줄을 따라 옮아지는것도 아니며 재산처럼 상속되는것도 아닙니다.

참되게 살겠다고 낡은 세계를 뛰쳐나와 혁명의 품에 안기려는 동무를 누가 밀어내겠소.

혁명이라는건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더이상 견딜수 없는 사람들만 뛰쳐 일어나는 단말마적몸부림이 아닙니다.

…

나라를 사랑하구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성스러운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손잡구 힘껏 싸워봅시다.》

영화의 이 장면은 혁명이 나라를 사랑하고 인간답게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잘 보여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그 실현을 가로막는 온갖 구속과 예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러나 모든 투쟁이 혁명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산만하게, 비조직적으로 벌리는 투쟁은 혁명으로 되지 못한다. 혼자서 개별적으로 싸우거나 사람들이 무규률적으로 투쟁해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지킬수 없고 실현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오직 조직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다. 인민들은 조직적으로 굳게 단결하여 혁명조직의 의사와 규률에 따라 움직이고 투쟁하여야 온갖 구속과 예속을 없앨수 있고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다. 조직적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조직적인 투쟁만이 혁명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인민대중은 낡은 사회의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고 한다. 그런데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지배계급은 착취제도에 의거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한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노예의 처지에서 온갖 불행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행복하게 살자면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없애야 하며 인민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이 남아있게 된다. 이 락후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이다.

문화혁명은 사람들을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인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이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은 결국 사람들을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을 참된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혁명이다.

사람들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되게 된다.

기술혁명은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선진적인 기술을 창조하여 자연을 개조리용하기 위한 혁명이다.

기술혁명에 의하여 사람들은 자연의 피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 주인으로 되게 된다.

혁명과 도덕은 뗄수없이 련결되여있다.

혁명은 낡은 도덕을 없애고 새로운 선진적인 도덕을 창조한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투쟁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맞지 않는 낡은 도덕, 비도덕적인것이 청산되고 그에 맞는 선진적인 도덕이 창조되게 된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낡고 비도덕적인것이 청산되고 새로운 혁명적인 도덕규범이 창조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3대혁명을 통하여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도덕의 잔재들을 없애버리고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을 활짝 꽃피워나가고있다.

이처럼 혁명은 낡은 도덕을 청산하고 선진적인 도덕, 사회주의도덕을 창조한다.

도덕은 혁명에 큰 영향을 준다.

혁명은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 혁명은 사상과 규률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할뿐아니라 고상한 도덕의리를 지닌 사람이라야 혁명에 나설수 있고 그 길에서 끝까지 싸울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야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며 혁명과업도 잘 수행할수 있다.

고상한 도덕을 지닌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수 있고 그들의 지지와 사랑속에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나 도덕이 없는 사람은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여 혁명과업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고상한 도덕을 지닌 사람이라야 또한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싸울수 있다. 고상한 도덕을 지닌 사람은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앞에 주저하지 않고 혁명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수 있다.

그러나 량심과 도덕의리가 없는 사람은 진실하게 행동할수 없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조건과 환경이 유리할 때는 혁명을 하는척 하지만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 제 한몸만을 생각하면서 혁명동지를 배반하게 되며 혁명의 길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사람들이 혁명을 하자면 사회주의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학생청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회주의도덕을 잘 지킴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살아도 사람답게 잘살기 위해서 하는것이 혁명이며 죽어도 정의를 위해 한몸을 아낌없이 바치다가 싸움터에서 값있게 죽어 영생을 얻는것이 혁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혁명은 수령의 뜻이고 수령의 의지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이다.》

복습문제

1. 왜 혁명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것인가.
2. 왜 고상한 도덕을 지닌 사람이라야 혁명에 나설수 있고 그 길에서 끝까지 싸울수 있는가.

과외읽기

혁명을 등지면 반혁명의 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혁명이란 탄탄대로가 아니다, 출발신호만 울리면 누구나 쾌속으로 뛰여가 쉽사리 결승선에 도달할수 있는 100m경기 같은것은 더욱 아니다, 성공과 실패, 전진과 후퇴, 앙양과 좌절의 부단한 교차와 반복속에서 승리를 향해 달리는 끝없는 행로가 바로 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장구한 행로에 무슨 곡절인들 없겠는가고 쓰시였다.

혁명의 길에는 곡절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혁명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조선인민혁명군대오에는 왕청유격대에서 중대장까지 하던 최용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최용빈은 한다하는 싸움군이였는데 원래 힘이 장사였다.

그런데 그는 몹시 허약해졌다는 핑게를 대고 중대를 떠나 소왕청치기에 가서 짐승사냥을 하면서 몸보신하며 생활한 그때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다. 혁명보다 제 한몸의 보신을 먼저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그는 얼마후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자 안해에게 편지 한장을 남기고 적통치구역으로 내려가버렸다.

편지에는 아이를 데리고 잘 있으라, 나는 혁명을 하다가 《민생단》으로 몰려 개죽음을 당하기가 싫어서 내려가는것이니 그렇게 알라, 그러나 내려가서도 혁명사업은 계속하겠다는것이였다.

그러나 해산한지 얼마 안되여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안해와 금시 숨이 넘어갈것만 같은 갓난애를 버리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적구로 달아나버린 그는 벌써 인간이 아니였으며 혁명을 계속할리 만무하였다.

그는 5년이 지나서 일제의 개가 되여 밀정들과 《토벌대》를 끌고와 포위진을 쳐놓은 다음 경애하는 수령님앞에 나타나 감히 《귀순》을 설교하였다. 얼마나 철면피한짓인가. 정말 변해도 너절하게 변한것이였다.

최용빈의 실례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그 종착점은 변절이다. 혁명가가 갈 길은 죽으나 사나 혁명의 한길밖에 없으며 이 길을 떠나면 반동이 되고 배신자가 되고 인간추물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시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간도에서 《민생단》문제로 숱한 사람들이 처형되던 그무렵에는 최용빈이처럼 유격구를 버리고 적구로 내려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민생단》이라는 루명을 쓰고 억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유격구를 떠나지 않고 혁명대오에 그냥 서있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죽으면 죽었지 량심을 팔수 없었고 혁명을 등지면 반혁명의 길밖에 갈곳이 없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라고 쓰시였다.

제2절.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혁명가의 생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생명이며 그것으로 하여 혁명가의 긍지와 영예가 있고 혁명가의 삶이 빛나는것입니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굳게 믿는 마음이며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려는 굳은 결심이다. 혁명적량심은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게 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생명이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혁명가의 생명이라는것은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닌 사람만이 혁명에 끝까지 충실한 진정한 혁명가로 된다는것이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이 있으면 혁명가의 영예를 지니고 혁명가로 살게 된다. 그러나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혁명가이기를 그만두게 된다. 다시말하여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버리는것은 곧 혁명가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

혁명가에게 있어서는 천금을 준대도 바꿀수 없고 목숨을 잃는대도 버릴수 없는것이 혁명적신념과 량심이다. 목숨을 바치면서도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키는 사람은 한생을 변함없이 혁명가로 살지만 제 한목숨을 건지기 위해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버리는 사람은 배신자가 되고만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가진 사람은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며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끝까지 진정한 혁명가로 살게 된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닌 사람만이 혁명의 길에 나설수 있다.

혁명은 그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하는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흥분이나 충동에 의하여 하는것도 아니다. 신념과 량심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다.

혁명적신념을 지닌 사람은 혁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므로 그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굳게 믿는다.

혁명가는 바로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는것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고 그 길에서 한몸바쳐 싸우게 된다.

혁명적량심을 지닌 사람은 누가 보건말건 언제나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해 자각적으로 몸바쳐 투쟁한다.

혁명가는 혁명적량심을 지닌것으로 하여 혁명의 길에 스스로 나서며 저 하나의 리속과 공명을 탐내지 않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성실히 싸우게 된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가의 지조를 지킬수 있다.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배가 순풍에 돛을 달고가는것처럼 순탄하지 않다.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사람만이 참된 혁명가이다.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 혁명가의 지조를 지킬수 있고 한생을 빛나게 살수 있다.

그러나 난관과 시련앞에 겁을 먹고 물러서면 혁명가이기를 그만두게 된다. 즉 혁명가로서의 생명을 잃게 되는것이다.

혁명적신념이 없는 사람은 난관과 시련앞에 겁을 먹고 동요하고 주저앉게 된다.

오직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와 싸워이기겠다는 혁명적신념을 가진 혁명가들만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간다.

혁명적량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하나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에 몸을 내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혁명동지를 쉽게 배반하고 제 한목숨을 구하는 길을 택하

게 된다.

혁명적량심을 지닌 혁명가들만이 누가 보건말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간다.

그리하여 혁명가로서의 지조를 지키며 한생을 혁명가로 살게 된다.

혁명적신념이 강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량심을 지닌 혁명가들은 그 어떤 유혹과 강압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견결하게 싸운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목숨으로 지켜싸운 진정한 혁명가들의 삶은 가장 값있고 영원히 빛나는 삶이다.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량심을 쉽게 버리는자들은 배신과 변절의 길, 역적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혁명에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 지갑룡이 변절도주한 왕바버즈사건이 잘 보여주고있다.

지갑룡은 10년가까이 무장대오를 따라다니면서 그 과정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했지만 고생끝에 조선독립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것을 참아왔다. 그는 쏘련과 일본간에는 뿌리깊은 적대적모순이 있으므로 불원간 전쟁이 터지면 쏘련군과 협동하여 일본군을 격멸하고 나라를 해방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1941년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자 그것을 바랄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러자 그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이 허망한 노릇을 더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원쑤들한테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동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끝내 변절하여 도망가고말았다.

어느 나라, 어느 혁명에서나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은 례외없이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쉽게 저버리는자들속에서 나왔다.

이처럼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길에 나서서 한생을 마칠 때까지 혁명가로 살게 한다.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타고나는것도 아니며 저절로 형성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혁명적인 사상과 도덕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때에만 지닐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청년들은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닌 참된 혁명가로 자신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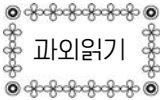
《량심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가로 될수 있고 량심에 때가 오르면 신념에도 때가 오르며 량심에 금이 생기면 신념에도 금이 생기고 투지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혁명가는 량심을 버리는 순간부터 혁명가이기를 그만두며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고마는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은 신념이며 량심이다.》

복습문제

1. 왜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닌 사람만이 혁명의 길에 나설수 있는가.
2. 왜 혁명적신념과 량심을 지닌 사람만이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낼수 있고 혁명가의 존엄과 지조를 지켜낼수 있는가.

두 인간의 행로

마동희선생님과 장증렬은 국내공작임무를 받고 갑산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마동희선생님은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혀를 끊었다. 살아서 역적으로 되는것보다 죽어서 충신이 되기를 바라는 참인간들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사람이 일단 죽음을 각오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다.

마동희선생님의 용기와 희생성은 신념이 강한데서 나온것이였다. 그 용기와 희생은 어떤 고문과 위협으로써도 거세할수 없는 무쇠같은 의지의 발현이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령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비밀을 지키면 조직은 건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자기가 죽어도 사령부는 무사하고 혁명은 승리한다고 믿었다.

하기에 그는 혀를 끊으면서 혁명가의 신념과 절개를 지키였다.

그러나 장증렬은 곤장맛을 몇개 보기 바쁘게 인차 자기가 아는 밀영들과 지하조직들을 다 불었다.

장증렬은 어찌하여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저주로운 배신의 길을 택하였는가.

혁명가는 굶어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가 되여있어야 한다. 그런데 장증렬에게는 맞아죽을 각오가 없었다. 자기가 맞아죽더라도 혁명의 리익을 고수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겠는데 그는 반대로 혁명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만 무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마동희선생님과 장증렬이 걸어온 서로 대조되는 두 인간의 행로를 회고하시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장증렬은 혁명을 팔아먹은 값으로 육체적생명은 건질수 있었으나 그대신 그보다 더 값비싼 정치적생명은 잃어버리였다. 사람들이 마동희를 기억하면서도 장증렬을 기억하지 못하는 리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3절. 혁명적동지애는 혁명승리의 근본열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가기 위한 근본열쇠는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시키고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의 길에서 동지들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다.

혁명은 온갖 사회적질곡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인것만큼 혼자서는 절대로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을 하자면 동지가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사상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할 사람은 부모형제가 아니라 혁명동지이다.

혁명의 길에서는 동지보다 더 가깝고 귀중한 사람은 없다.

동지만 있으면 천만대적도 두렵지 않으며 사나운 광풍도 막아낼수 있다. 동지야말로 천하에 제일 귀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라고 한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승리의 근본열쇠이다.

우리 혁명은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전진하며 승리하여왔다. 동지애야말로 혁명의 시작문도 열고 승리문도 여는 근본열쇠이다. 우리는 앞으로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시키고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혁명적동지애가 혁명승리의 근본열쇠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때문이다.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의 육친적인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성장하지만 철이 들어 혁명의 길에 나서면 동지들의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살며 성장하게 된다.

혁명적동지애는 사상을 공고히 하고 서로 고무격려하며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운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들이 혁명사상을 어떤 조건에서도 변치않고 굳게 간직하도록 한다. 혁명의 길에서 간혹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에도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각성하게 되며 혁명의 뜻을 굳게 다져나가게 된다. 다시말하여 동지애는 혁명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지도록 한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들이 서로 고무격려하며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실하도록 한다. 동지적사랑은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서로 고무격려하며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그 역경을 굴함없이 뚫고나가게 한다. 동지적사랑은 혁명가들로 하여금 자기의 한목숨을 바쳐 혁명의 사령부를 지키게 하며 혁명조직과 동지들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도록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한없이 뜨겁고 숭고한 동지적사랑을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과 건설

을 령도해오시면서 혁명전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과 손길아래 자라난 혁명가들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싸웠다.

혁명영화《조선의 별》의 주제가《동지애의 노래》는 수령과 전사사이의 숭고한 동지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돌우에 꽃을 피우는 정성으로 전사들을 혁명가로 키워주시고 죽어도 잃지 않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으며 혁명전사들은 혁명의 길에서 한번 다진 맹세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신념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웠다.

혁명적동지애가 혁명승리의 근본열쇠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기초이기때문이다.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은 통일단결된 힘이다. 혁명대오가 통일단결되면 혁명에서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하고만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자랑찬 승리가 잘 보여주고있다.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통일단결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였으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승리도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우리 혁명이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고있는것 역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힘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혁명은 통일단결의 힘으로 승리해왔으며 통일단결의 힘으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할 때 참으로 공고한 통일단결로 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공고한것으로 된다. 하나의 사상이란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은 동지애의 중심이다.

수령의 손길아래에서 동지애의 대부대가 자라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결합되게 된다.

수령을 떠나서는 동지애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동지의 세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동지를 자신처럼 굳게 믿고 동지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동지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게 하는 사랑, 생사운명을 같이하게 하는 사랑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적동지애는 사람들을 가장 진실하고 공고하게 결합시키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불패의것으로 되게 한다.

이 세상에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통일단결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다.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통일단결의 힘만 있으면 그 어떤 천만대적도 물리칠수 있으며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다. 그래서 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단결의 기초는 혁명적동지애라고 하는것이다.

학생청년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구호를 높이 들고 동지애로 개척된 우리 혁명을 동지애로 완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리모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에서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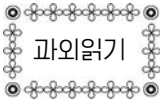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에도 동지애는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생명선이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걸어온 수십성상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동지애와 동지적의리의 발전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세상에 혁명동지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복습문제

1. 동지애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운다는데 대하여.
2. 동지애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기초로 되는데 대하여.

과외읽기

21세기의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는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에서 주인공 강연옥이 부르는 노래이다.

주인공 연옥은 태백산병동까지 환자들을 후송할 임무를 받고 떠나게 된다.

부상병들을 이끌고 천신만고하여 태백산병동에 찾아갔으나 병동은 이미 2호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연옥은 안타까와 눈물을 흘린다. 연옥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최고사령부에 계실 경애하는 수령님을 그리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른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붉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곳은 그 어데일가

연옥은 어떠한 고난과 애로도 물리치고 최고사령부에 찾아가 그리운 장군님의 품에 안길 굳은 결심을 다진다.

연옥은 헌신적인 투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였으며 그렇게도 바라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다.

연옥은 적기의 맹폭격속에서 환자들을 업어나르다가 적탄을 몸으로 막아 동지를 구원한다.

그는 마지막순간에 자기의 당원증을 당중앙위원회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며《장군님을 뵙고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영웅적인 최후를 마친다.

가극에서 주인공 강연옥이 부르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자기의 령도자를 늘 마음속에 그리며

령도자와 뜻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하며 영원히 변치않을 신념과 의리를 담은 조선혁명가들의 동지애의 노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우리 전사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21세기의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로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전우, 진짜동지로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

제4절. 혁명가의 풍모

혁명가가 되자면 혁명가로서의 풍모를 갖추어야 한다.

풍모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의 면모, 모습을 두고하는 말이다. 그러나 혁명가의 풍모는 인간의 생김새와 같은 겉모습을 놓고 말하는것이 아니다.

인간의 풍모를 이루는데는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지식, 도덕과 체력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풍모가 규정된다.

혁명적인 사상과 풍부한 지식, 아름다운 도덕과 튼튼한 체력을 가진 사람은 고상한 풍모의 소유자이다.

가장 고상한 풍모의 소유자는 주체형의 인간, 혁명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높은 사상의식과 깊은 지식, 고상한 도덕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며 풍모입니다.》

주체형의 인간, 혁명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주체형의 인간, 혁명가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상한 풍모를 가져야 한다.

혁명가의 풍모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혁명사상이다.

참된 인간의 풍모를 론할 때 응당 그가 어떤 사상을 지니고있는가 하는것을 중시하여야 한다.

사람의 참모습은 사상에 있다. 사람에게서 사상을 떼놓으면 남는것은 빈 허울뿐이다.

사람의 풍모는 돈이나 재산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결코 훌륭한 사람

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돈이 적고 재산이 적어도 옳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것이다.

혁명사상을 지닌 사람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 반면에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을 지닌 사람은 오직 개인의 리익과 향락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반혁명적책동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사상이 사람의 풍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만큼 참다운 혁명가가 되자면 옳바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가 무장하여야 할 사상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참된 혁명가가 되자면 반드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참된 혁명가로 더 잘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가가 지녀야 할 풍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깊은 지식이다.

혁명가는 사상적으로 견실할뿐아니라 혁명을 할수 있는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사상적으로 견실하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혁명에 충실할수 없다.

혁명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인것만큼그것을 감당할 힘, 지식이 있어야 한다.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학생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혁명인재로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이 실천에서 높이 발휘되자면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나가는 높은 수완과 결부되여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제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원만히 해제끼는 일솜씨, 혁명적사업기풍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솜씨와 기풍이 없으면 웬만한 일에서도 동요하며 주저하게 되고 창발성과 적극성을 내여 일을 제끼지 못하고 앉아뭉개게 된다.

혁명가가 지녀야 할 풍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고상한 도덕이다.

혁명가를 가리켜 가장 아름답고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고있기때문이다.

혁명가는 고상한 사회주의도덕품성을 가져야 인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인민대중과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도덕이 없는 사람은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며 결국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고상한 사회주의도덕은 혁명가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로 된다.

혁명가가 지녀야 할 풍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건장한 체력이다.

아무리 깊은 지식이 있어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혁명가의 풍모를 이루는 사상과 지식, 도덕, 체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이다.

아무리 과학지식을 풍부히 소유하고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옳바른 사상을 가지지 못하면 그 지식을 사회와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써먹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치부를 위하여, 나아가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써먹는다.

과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혁명가가 되라는것은 옳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여야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과학자가 될수 있다는 뜻이다.

옳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현대과학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수 있고 배운 지식을 혁명과 건설에 효과적으로 써먹을수 있다.

그리고 옳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건전한 도덕품성의 소유자로 될수 있다. 사람이 사상적으로 병들고 변절하면 량심도 도덕의리도 없는 인간추물이 되고만다.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혁명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혁명승리의 비결이 있다.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만이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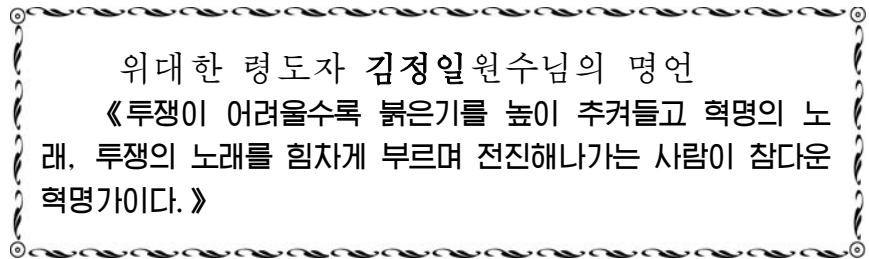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기본핵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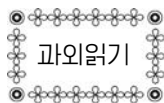
학생청년들이 지덕체를 겸비해나가는 과정은 곧 혁명가의 풍모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학생청년들이 미래의 혁명가로 준비해나가는데서 지덕체를 겸비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다.

학생청년들은 학생시절에 지덕체를 훌륭히 겸비해나감으로써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자질과 풍모를 더 잘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투쟁이 어려울수록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전진해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혁명가이다.》

복습문제

1. 혁명가의 풍모를 이루는 내용은 어떤것들이며 혁명가의 풍모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무엇인가.
2. 학생청년들이 혁명가의 풍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혁명가 김책선생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책선생님을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김책선생님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해방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충직하게 받들어왔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북만부대에서 높은 직급을 지니고있던 김책선생님은 나이로 보나 투쟁경력으로 보나 좌상대접을 받을수 있는 인물이였다. 하지만 그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령도의 중심으로 내세웠으며 무한히 존경하고 받들었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는 부수상 겸 산업상의 중책을 맡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 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맨 앞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선사령관으로서 최전선에 나가있으면서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전선시찰을 나가시면 아래일군들에게 여기가 어딘데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오는가, 동무들이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인가고 하면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걱정하여 생야단을 하군 하였다.

김책선생님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실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단추를 채운 다음에야 통화를 시작하군 하였다. 그는 병석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김책이 나에게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종일 해도 못다할것입니다.》

참으로 김책선생님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혁명가의 전형이였다.

제5절. 일심단결은 혁명의 제일무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한 혁명의 제일무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하나의 혁명대오, 일심단결의 대오를 이루고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심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령도의 중심이시다.

우리 혁명대오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굳게 뭉쳐있으며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단결과 령도의 중심이 없이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결합될수 없으며 일심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있다. 군대와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 장군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혁명대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쳐있다.

사상의지적단결이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결합된 단결이라는것이다.

일심단결이 이룩되자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 온 사회가 힘있고 공고한 혁명대오로 될수 있다.

혁명대오안에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오의 단결은 고사하고 사분오렬을 면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떨쳐나설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뼈와 살로 만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처럼 일떠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 걸음도 하나이다. 우리의 혁명대오는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숨쉬고 행동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운명도 같이하고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심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혁명대오는 령도자와 전사사이 그리고 혁명전사들호상간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심에 기초하여 굳게 뭉쳐있다.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심을 떠나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 어떤 강요나 통제에 의한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량심과 의리에 기초한 도덕의리적인 단결만이 진실로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로 될수 있다.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심은 혁명대오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된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심에 기초한 단결과 결합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혁명의 제일무기이다.

일심단결이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혁명의 제일무기라는것은 일심단결이 혁명의 첫째가는 무기이며 가장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이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첫째가는 무기이다.

단결을 떠나서 혁명위업의 개척과 그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단결은 혁명이고 혁명은 단결이다. 혁명투쟁에서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는 혁명의 이 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싸리나무 한가치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꺾지 못하리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낸다오

강기슭의 모래알은 흩어지여도
산기슭의 바위는 못 움직이리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이겨낸다오

혁명 그자체가 자주성을 위한 조직적인 투쟁인것만큼 혼자서는 절대로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은 오직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투쟁력사가 잘 말하여주고있다.

우리 혁명은 단결로부터 시작되고 단결을 무기로 하여 승리하여온 혁명이다.

일심단결의 전통은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써 일심단결의 전통이 마련될수 있었다.

김혁, 차광수선생님들을 비롯한 청년전위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삼천리강산을 밝게 비치는 새별로, 민족의 태양으로,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된 일심단결의 전통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에 일심단결이 이룩될수 있었으며 일심단결을 무기로 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혁명투쟁은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치렬한 힘의 대결이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혁명력량에 비하여 혁명력량이 강해야 한다.

강력한 혁명력량은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혁명력량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될 때 거대한 혁명력량으로 될수 있다.

단결로부터 시작되고 단결을 무기로 하여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력사는 일심단결이야말로 혁명의 가장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있다.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있지만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의 무기를 가지고있다.

적들은 이것을 제일 무서워하고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울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수 있은것은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었기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말씀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생명이며 우리가 끝까지 들고나가야 할 기치입니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입니다.》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길에 일심단결이 있고 사회주의승리가 있습니다.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복습문제

1. 우리의 일심단결은 어떤 단결인가.
2. 일심단결이 왜 혁명의 제일무기로 되는가.

제2장. 총대중시

제1절. 혁명적군인정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에 의하여 창조되고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이며 우리 혁명의 제1선을 지켜선 선군혁명의 기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 인민군대의 고상한 정치사상적풍모와 혁명적기상, 전투적기백은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며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의 정신이다.

인민군군인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비행훈련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착륙으로 이행하던 길영조영웅의 비행기에서 예상치 않았던 폭발직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행기에 불이 달리자마자 비행지휘소와 주도기에서는 긴급탈출명령을 내리였다. 비행기에서 탈출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살수 있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 그는 자기 생명보다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였다.

처음에 비행기가 떨어지려던 지점은 고층살림집들이 늘어선 주택지구인데다가 그가운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기수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떨어져서는 안되는 비행금지구역이였다. 그는 다시한번 바다가로 기수를 돌려 불타는 비행기와 함께 서슴없이 자폭의 길을 택하였다.

현지에서 길영조영웅의 희생적인 영웅적행동을 지켜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후날 길영조영웅이 비행기에서 탈출하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지만 비행기가 그대로 떨어지면 혁명의 수뇌부가 위험에 처할수 있었으므로 자기 한목숨을 바쳐 비행기를 끝까지 안전한 곳에 떨어지도록 조종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는 자기희생정신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 영웅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길영조영웅의 육탄정신, 자폭정신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다.

학생청년들은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길영조형의 자폭영웅, 육탄영웅으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이다.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은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의 산모범으로 되고있다.

안변청년발전소는 공사량만으로도 서해갑문건설의 2배에 달하는 방대하고 조건이 어려운 공사였다.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명령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받아안고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억수로 쏟아지는 석수와 붕락을 육탄으로 밀어제끼면서 발전소언제를 쌓고 100리물길굴공사를 기어이 완성하였다.

공사기간 백수십개의 붕락구간과 수천개소의 사고위험이 앞을 막아서고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신념의 구호를 웨치면서 공사전투를 벌려나갔다.

특히 대형물길굴공사기간에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굴진을 갓 시작한 어느날 갑자기 물구멍이 터져 지상에서 흐르던 강물이 그대로 갱안에 쓸어들어 눈깜짝할사이에 갱도가 물에 잠기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이 위험한 정황속에서도 강물줄기를 돌리면 돌렸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정해주신 대형물길굴은 조금도 돌릴수 없다고 웨치면서 모두가 뼈를 에이는 엄동설한의 찬물속으로 서슴없이 뛰여들어 기어이 물구멍을 막고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굴진작업을 하던 한 구분대에서는 작업중에 갱이 붕락되여 군인건설자들이 갱막장에 갇히게 되였다. 그들은 숨막히는 갱막장에서 극도로 지쳐 몸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최악의 정황에 부닥쳤지만 자신들의 생명보다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일념으로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

신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가운데서 한두가지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안변청년발전소는 자기 한몸보다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명령관철부터 생각하는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에 의하여 선군시대의 대기념비로 일떠설수 있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학생청년들이 따라배워야 할 투쟁정신이며 오늘의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높이 발휘하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곳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기적과 혁신이 일어난다. 혁명적군인정신이야말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력한 투쟁의 무기이다.

학생청년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감으로써 선군시대의 참다운 혁명가로 자신을 더 잘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복습문제

1. 혁명적군인정신이란 어떤 정신인가.
2.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제2절.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

우리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무적필승의 강군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다.

혁명군대의 위대성은 최고사령관의 위대성에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은 문무를 겸비하시고 가장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천출명장이시다.

천출명장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탁월한 군사사상과 천재적인 예지, 뛰여난 령군술과 비범한 령도풍모에서 찾아볼수 있다.

동서고금에는 군대와 인민을 령도한 위인들과 명장들, 영웅호걸들이 많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으신 위대한 령장은 알지 못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천만대적도 한손에 거머쥐시고 쥐락펴락하시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령장중의 령장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짱과 담력, 기상앞에서는 그 어떤 원쑤들도 감히 어쩌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사랑과 인덕으로 만사람을 한품에 안으시고 보살펴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화신, 걸출한 인덕의 화신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사들이 건강해야 최고사령관도 건강할수 있다고 하시며 자신께 보내온 남방과일도 전사들에게 먼저 돌려주시고 초병들이 추울세라 군복두터이도 가늠해보시며 전사의 먼지묻은 신발까지 손수 더듬어보시는 우리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천하제일명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쳐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제1선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이다.

혁명의 주력군이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을 주도해나가는 정치적력량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과 수령의 령도를 제1선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력량을 말한다.

우리 혁명의 제일생명선을 지켜선 혁명대오는 인민군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강적과 직접 맞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목숨으로 수호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이다.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에 있어서 인민군대보다 더 강한 집단

은 없다.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며 가장 조직화된 전투대오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였을 때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보위한것도 인민군대이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기풍을 발휘한것도 인민군대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하겠다는 구호를 들고 인민경제의 주요전선에서 돌파구를 열고 로력적위훈을 세운것도 다름아닌 인민군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도덕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군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도덕적으로 강대하고 우월한 군대이다.

도덕은 전쟁승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상한 도덕을 소유한 군인들은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영웅적으로 싸운다. 그러나 고상한 도덕을 소유하지 못한 군인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보다 자기 한목숨을 더 귀중히 여기며 전투마당에서 도피하거나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 인민군대는 군사기술적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군대이다.

현대전에서 승리하자면 군대가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게 방어수단과 공격수단을 다 갖춘 위력한 군대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자체의 강력한 국방공업이 창설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인민군대처럼 정치도덕적으로뿐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 우월한 군대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도덕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우월한 군대인것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낼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인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영예이다.

복습문제

왜 우리 인민군대가 세상에서 제일인가.

제3절. 총대를 사랑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에 헌신하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유한 풍모로 되여야 합니다.》

선군시대 청년들은 총대를 사랑하는 고유한 풍모를 지녀야 한다.

청년들은 총대를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

총은 혁명의 무기이다.

혁명은 계급적원쑤들과의 피의 대결이다. 계급적원쑤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으며 착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후발악을 한다.

총은 혁명을 위한것이며 혁명을 하자면 총대를 튼튼히 틀어잡아야 한다.

총대우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하여 유지된다는것이 혁명위업의 개척과 그 완성의 비결을 밝혀주는 혁명의 원리이다.

총은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변하지 않는 혁명동지이다.

총은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이다. 총이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라는것은 혁명가는 언제나 총과 함께 숨결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여야 한다는것이다. 혁명가는 한순간도 손에서 총을 놓아서는 안된다. 손에서 총을 놓는다는것은 무장해제를 의미하며 투항변절을 의미한다. 총을 떠난 혁명가는 진정한 혁명가가 아니다.

총은 변하지 않는 혁명동지이다. 변하지 않는것이 총이다.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것이 총이라는 말속에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총은 버릴수 없으며 영원히 총과 운명을 같이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총과 함께 한생을 사는데 혁명가의 참된 삶이 있다.

우리의 총에는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피와 넋이 스며있으며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다.

총이 없으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고 나라와 민족, 인간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낼수 없다.

우리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하여왔다.

우리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하여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이 권총을 혁명의 계주봉으로 물려받으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였으며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세상에 높이 떨치고계신다.

우리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승리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후 총대에 의거하여 당도 국가도 창건하시였으며 총대를 강화하여 새 조국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신만고로 마련하여주신 군대와 무기가 있었기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간고하고 피어린《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미제침략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은것은 강유력한 혁명의 총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선군시대에 사는 학생청년들은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중시하는것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의무로 여겨야 한다.

총대를 사랑하자면 우선 붉은청년근위대훈련에 성실히 참가하여 군사를 성실히 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붉은청년근위대를 친히 무어주시였으며 혁명의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학생청년들에 대한 최대의 신임이고 믿음이다.

학생청년들은 붉은청년근위대훈련에 성실히 참가하여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은동에서 진행된 군사야영기간에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군사교범의 요구대로 훈련하고 생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야영기간 전술과 사격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훈련에서 언제나 야영생들의 앞장에 서시는 숭고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여러가지 무기를 능숙히 다루며 백발백중의 높은 사격술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군사야영기간을 군사복무로 여기고 군대에서와 같은 강한 규률속에서 생활하도록 야영생들을 이끄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붉은청년근위대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군사를 성실히 배워야 한다. 누구나 다 총을 능숙히 다루며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단 유사시에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서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할수 있게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총대를 사랑하자면 또한 총과 함께 한생을 빛내일 각오를 가지고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조국보위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기본력량이다.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전투적기백에 넘치는 청년들이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야 한다.

학생청년들은 총대우에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이 있고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바로 인식하고 총을 잡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것을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의무로 여겨야 한다.

청년들은 총을 메고 조국보위에 섰을 때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전사라는 높은 영예를 지닐수 있으며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냈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다.

복습문제

1. 왜 청년들은 총대를 사랑하여야 하는가.
2. 총대를 사랑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제3장. 인간의 참된 삶

제1절. 인생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이 한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생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인생관이란 인간의 삶(생)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이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참다운 삶인가, 참된 삶을 어떻게 누려나가겠는가 하는것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을 말한다.

인간의 삶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이 생명을 지니고 활동, 생활하는것을 두고 말한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것을 살펴보면 참된 삶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도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 값없고 너절한 삶은 어떤것이고 값있고 참된 삶은 어떤것인가에 대한 견해, 관점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누려나가겠는가하는 립장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가지는 삶에 대한 이러한 견해, 관점과 립장이 바로 인생관이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참된 삶으로 여기는가 하는것은 어느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가, 어떤 생활을 참된 생활로 여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다.

여기서 어느 생명이 더 귀중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람들이 생활하는것을 보면 사회와 집단에 크게 기여하며 사는 생활도 있고 개인의 향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있다.

여기서 어느 생활이 참된 인간생활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관점, 립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게 되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관이 있게 된다.

인생관에는 크게 개인주의적인생관과 집단주의적인생관이 있다.

개인주의적인생관은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다. 개인주의적인생관에서는 사람에게서 제일 귀중한것은 개인의 생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인생관이 퍼져 사람들을 부패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있다.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는 남을 해치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지어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모형제까지 죽이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순간이나마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보려는데로부터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가 되여 정신육체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있다.

집단주의적인생관은 개인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참다운 인생관이다.

집단주의적인생관은 개인만을 위하여 사는것은 값없는 생활이며 오직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는것이 값있고 참다운 생활이라고 보는 인생관이다.

집단주의적인생관에서는 사람의 가장 값높은 삶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이면서 사는 삶이라고 본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자면 사회정치적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여야 하며 그 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사회와 집단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은 뿌리와 아지에서 떨어진 잎사귀와 같은것으로 된다.

집단의 가장 높은 믿음과 사랑은 곧 그 집단의 최고대표자인 수령의 믿음과 사랑이다. 그러므로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이 안겨주는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지만 보다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육체적생명보다 귀중한것은 우선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님으로써만 사람답게 살수 있기때문이다.

사람은 개별적으로 사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산다. 사회적집단을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사람들은 사회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육체적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해안포병들은 육체적생명을 바쳐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인 참다운 영웅전사들이였다.

조선예술영화 《월미도》에서 리태운중대장을 비롯한 주인공들은 불과 한개중대인원과 포 4문으로 현대적무장을 갖추고 달려드는 5만의 적과 맞서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바쳐싸웠다. 치렬한 3일간의 격전끝에 전투원들은 몇명밖에 남지 않았고 포는 마사졌으며 포탄도 다 떨어졌다. 누구도 이 마당에서 살아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어린 무전수 영옥이도 련대에 련락을 가라는 중대장에게 자기도 중대에 남아 싸우다가 죽겠다면서 중대를 뜨려 하지 않는다.

이때 중대장은 확신에 넘쳐 말한다.

《누가 죽는다고 했소? 누가? 이 월미도에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소. 우리는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요.》

이 말에는 비록 육체적생명을 바쳐서라도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데 인간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다는 진리가 담겨져있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육체적생명보다 귀중한것은 또한 사회정치적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기때문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정치적집단과 운명을 같이하기때문이다.

육체적생명은 끝이 있는 생명이지만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정치적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는 생명이다.

사람들이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게 되면 그의 육체적생명은 끝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사회정치적생명만은 사회정치적집단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 빛나게 된다.

우리는 영생의 꽃으로 불리우는 아동단원 김금순소녀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김금순은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은 소녀였다.

9살이면 꽁다리연필처럼 짤막한 생애이다.

그러나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인생이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태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세상에는 100살을 살 때까지 민족앞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는 9살에 후대들의 추억속에 영생할 위훈의 창조자가 되였다.

사람들이 어떤 인생관을 지녔는가 하는데 따라 그의 인생행로가 규정된다.

옳바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한생을 값있게 살수 있다.

그러나 그릇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한생을 허무맹랑하게, 너절하게 살게 된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너절하게 살았다면 그런 한생은 수치스러운 한생, 저주로운 한생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인생행로를 바로 정하고 한생을 값있게 살자면 옳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지녀야 할 인생관은 집단주의적인생관, 주체의 인생관이다.

학생청년들은 참다운 인생관인 주체의 인생관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참된 삶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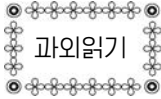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바로 여기에 인생관의 근본핵이 있으며 삶의 참된 가치도 있고 행복의 척도도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람없이 보낸 백날, 천날보다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산 하루가 더 값높고 귀중하며 빛나는것이다.》

복습문제

1. 사회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빛내여나가는것이 가장 옳바른 인생관으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2. 우리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인가.

과외읽기

《충청도의사》의 인생관과 정치적생명

조선인민혁명군부대에 《충청도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50대의 의사가 있었다. 그 의사의 이름은 류한종이였다. 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부대에서 몇달동안 전상자들을 치료해주었다. 류한종선생님은 금침몇대와 수술칼 하나를 가지고 외상이란 외상은 다 고쳤다. 명의인데다가 정성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대원들이 다들 따르고 존경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잘 돌봐주시였다. 한지잠을 많이 자는 그를 위해 곰가죽도 마련해주시였고 성시공격을 하고 전리품을 로획할 때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부터 찾아서 류한종선생님에게 주도록 하시였다.

류한종선생님의 건강상태가 몹시 나빠졌기때문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정초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였다. 그 나이에 산속에서 유격대생활을 한다는것은 사실 보통 의지나 각오를 가지고서는 해낼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석달만에 류한종선생님은 다시 경애하는 수령님을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몇달동안 안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호강스럽게 보냈지만 먹는 밥이 살로 가지 않고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모로 서는것 같아서 견딜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목숨이나 구차스레 부지해서야 그게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류한종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깨끗한 량심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사고방식이였다. 다시말하여 그의 말은 사람의 인생이 목숨이나 부지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참답게 사는데 있다는것이다.

류한종선생님의 참다운 생활은 유격대생활이며 그것은 곧 그의 정치적생명을 의미한다. 그는 량심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다시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에 안겼으며 유격대생활에 뛰여들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를 회고하시여 최남선이나 림수산이나 지

갑룡이와는 얼마나 대조되는 인간인가고, 신념을 잃은 림수산이 도망갈 궁리를 하고있을 때 류한종은 유격대에 입대하였다고, 최남선은 우리의 투항을 촉구하는 권고문이라는것을 써가지고다니며 만주산야와 백두산에 뿌리였지만 류한종은 그가 《밀림의 원시경》이니,《불안정한 생활》이니 하고 묘사한 유격대생활이 그리워 몇달전에 떠났던 우리의 대오에 다시 찾아와 복대를 탄원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범한 의사였지만 류한종은 최남선이나 림수산, 지갑룡이보다 얼마나 돋보이는가고 하시였다.

제2절. 삶의 가치와 보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가치라는 말은 쓸모, 귀중함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가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인간의 가치,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말한다.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에 기여한것이 있고 그것으로 하여 산 흔적을 남기는것을 말한다.

사람의 삶의 가치를 재는 기준은 사회와 집단의 리익이다. 사회와 집단에 리익이 되게 사는 삶은 가치있는 삶이고 그렇지 못한 삶은 가치없는 삶이다.

사회와 집단에 기여하면서 산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사회와 집단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다.

비록 사람으로 태여나기는 했으나 사회와 집단을 위해 해놓은것이 없다면 태여났던 흔적이 없다. 살고도 산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면 태여나지 않았던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의 리익을 희생시켜 저 하나의 리속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은 사회와 집단의 미움, 버림을 받게 된다.

사람의 삶의 가치의 크기는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

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산 사람들의 삶은 다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가치있는 삶도 그 크기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조국과 인민에게 더 많은 리익을 주고 더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의 삶의 가치는 더 크다.

조선예술영화 《생의 흔적》에서 주인공 서진주의 생활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진주는 남편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던 젊은 녀성이다. 그러던 진주가 전투에서 희생된 남편의 뜻을 이어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 뛰여들어 값있게 살려고 한다.

진주는 편안한 일자리를 주겠다는 부대장의 권고도 사양하고 마음이 변해 딴데로 시집가련다는 가슴아픈 뒤소리를 들으면서도 기어이 섬을 떠난다. 진주는 섬을 떠나기 전날 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편지를 눈물속에서 읽는다.

《… 진주, 우리가 그렇게 살수 없지 않아? 저 하나를 위해 일생을 산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던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친 사람만이 생의 고귀한 흔적을 후대들앞에 남길수 있는거요.…》

진주는 남편이 고향땅 호남벌에서 가지고온 흙주머니를 간직한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고장인 성남협동농장으로 간다. 거기서 그는 유가족으로서의 우대도 바라지 않고 평범한 농장원이 되여 성실하고 이악하게 일해나간다.

그 과정에 관리위원장으로 성장하며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메마른 땅을 걸구고 새땅을 찾아 논을 풀어 정보당 벼 10t이상의 수확을 낸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웅이 되여 영웅대회에서 토론까지 하게 된다.

《… 저는 이런 성장과정에 비로소 개인을 위한 삶은 크게 부귀영화라고 해도 그 가치는 바늘값만도 못하며 오직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친 삶만이 참으로 천금같이 귀중하다는것을 생활의 진리를 통

하여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주는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확신에 넘쳐 말한다.

바로 진주처럼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으로 삶의 흔적을 남기는것이 참되고 가치있게 사는것으로 된다.

삶의 가치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사람이 사회와 집단에 리익을 주고 사회적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받을 때 가지게 되는 긍지가 보람이다.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해놓은 일이 많을수록 큰 보람을 느낀다. 사회와 집단에 기여한 공로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것일 때에는 그 보람이 영원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해 기여한것이 없는 사람, 값없는 삶에서는 보람이 있을수 없다.

사람의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은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다.

당과 조국, 인민앞에 후회가 없이 떳떳하게 살고 부끄럼없이 아름답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참된 삶이다.

우리 시대 청년들은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고 혁명의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꽃피우는데 있다. 사람에게서 값없이 산 한해보다 값있게 산 하루가 더 귀중하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값있게 살아야 한다. 오래 산다고 하여 보람찬 삶이 아니고 돈이나 재산이 많고 안락을 누린다고 하여 행복한 삶이 아니며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하여 영예로운 삶이 아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고 하여도 혁명의 길에서 아름다운 자욱을 남기지 못하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만다.

사람은 되돌아설수 없는 생의 매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살아야 하며 생의 일분일초를 빛나게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자욱을 남겨야 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인간들이다.

한생을 빛나게 사는데서 생을 어떻게 마치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의 시작도 잘하여야 하지만 생의 마무리를 값있게 하지

못하면 그런 생은 빛날수 없다.

생의 시작이 아름다우면 생의 마감도 아름다와야 한다.

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은 당과 인민의 사랑과 추억속에 영생하게 된다.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년대기에는 한생을 빛나게 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김혁, 김책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생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산 충신중의 충신이고 참된 영웅들이다. 그들은 혁명전사가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충신의 본보기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가치와 보람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 있다. 우리 학생청년들은 모두가 김혁, 김책형의 충신으로 자라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값있게 바쳐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영웅적으로 살아야 한다.》

《일을 많이 한다는것은 그만큼 사는 보람이 크다는것을 의미한다.》

복습문제

1.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사람마다 삶의 가치가 다른것은 무엇때문인가.
2. 가장 큰 삶의 가치와 보람은 어디에 있으며 왜 그런가.

제3절. 청춘의 리상과 참된 삶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젊은 시절에는 리상을 높이 세우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리상이란 사람이 최고로 바라는 목표, 최고로 희망하는 목표이다.

희망하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최고로 희망하는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리상이 아니다.

사람은 리상을 가져야 한다.

리상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규정해주며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앞으로 떠밀어준다.

세상에는 뚜렷한 리상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를 되는대로 살아간다. 매일 매 순간을 이렇게 살면 일생을 헛되게 보내게 된다.

사람은 참다운 리상을 가져야 참답게 살수 있다.

참다운 리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옳게 세운 사람이다.

참다운 리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의 한생을 값높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조선예술영화 《도라지꽃》에서 송림이와 원봉이의 생활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송림이는 자기 고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꾸리는데서 리상을 찾았으며 원봉이는 산골에서는 리상을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도시로 나가 향락을 누리는데서 리상을 찾았다. 그는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나갔으나 나라에 보탬을 주는 일은 별로 하지 못하였다. 그는 인생 말년에야 값없이 살아온 자기를 돌이켜보며 후회한다.

그러나 송림이는 자기 고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송림이의 삶이야말로 값높은 삶이다.

이것은 리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참답게 살수도 있고 값없이 살게도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은 리상을 옳바르고 높이 세워야 한다.

특히 학생청년시절에 리상을 높이 세워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학창시절에 우리 시대 청년들이 가져야 할 숭고한 리상은 어떤것이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주체47(1958)년 3월 어느날이였다.

학생들속에서 청년들이 가져야 할 리상을 놓고 론쟁이 맹렬하게 벌어졌다.

어떤 동무는 높은 리상은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날릴수 있는 일을 하는것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동무는 지난날의 이름난 발명가, 위인들처럼 세상을 놀래우는 과학자가 되는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동무는 혁신자로, 누구는 음악가 혹은 체육인이 되는것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의 론쟁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그들이 리상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도록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지녀야 할 참된 리상은 우리 혁명의 목적과 잇닿아있는 가장 높고 훌륭한 리상이여야 하며 수령님께 충실하고 당과 조국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길에서 꽃펴나는 리상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참된 리상은 우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며 이 땅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목적과 잇닿아있는 가장 높고 훌륭한 희망이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의 높은 뜻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며 이 땅에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이다. 바로 이 높은 뜻을 실현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목적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고향마을과 도시를 훌륭히 꾸려야 하고 현대적인 공장도 건설하여야 하며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 등 모든것을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모두 우리 혁명의 목적과 잇닿아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혁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을 꾸

리고 공장을 건설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훌륭한 희망으로 된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참된 리상은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하고 당과 조국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길에서 꽃펴나는 리상이여야 한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리상은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의 근본목적이며 최고의 행복이다.

위대한 장군님께 충실하는 길에 영원히 죽지 않고 빛나는 값높은 삶이 있다.

참된 리상은 당과 조국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길에서 꽃펴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며 우리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길에서 꽃펴나는 리상이야말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다운 리상이다.

청춘시절에 리상을 높이 세우면서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리상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또 하루이틀에 실현되지도 않는다.

리상은 오직 꾸준한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꾸준한 노력, 끊임없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리상도 실현될수 없다.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는 애로와 난관이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굳센 의지를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

오늘 못하면 래일 하는 식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은 리상을 실현할수 없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듯이 하루하루의 투쟁성과가 리상의 성공탑을 쌓게 한다.

리상을 높이 세우고 실현하는데서 학생시절, 청춘시절이 매우 중요하다.

청춘시절을 헛되게 사는것은 정열과 힘이 솟구치는 청춘을 잃는것으로 되며 리상실현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것으로 된다.

사람의 한생에서 청춘시절이 중요한것만큼 청춘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청춘을 빛나게 살자!》,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고 인생관이다.

학생청년들은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춘시절에 리상을 높이,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간을 아껴가며 이악하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며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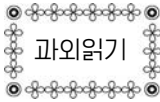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랑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꿈이 많고 리상이 높아야 위대한 발명도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포부와 리상이 없는 젊음은 청춘이 아니다.》

복습문제

1. 참답게 살자면 왜 옳바른 리상을 가져야 하는가.
2. 청년들이 가져야 할 리상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쌀로써 받드는 효녀가 되고싶어

서해지구의 어느 협동농장에 탄원해나간 한 청년동맹원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나서자라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머물고가는 어느 한 호텔에서 일하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포부와 리상이 꽃펴날 곳을 수도를 떠나 서해지구의 협동농장으로 택하였다.

어느해인가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수도 평양에서 사는것이 좋은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장군님을 쌀로써 받드는 효녀가 되고싶어 이 농장벌에 탄원해왔습니다. 지금도 장군님께서 농사일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여나 일손을 잡게 됩니다.

올해에는 기어이 로적가리를 높이 쌓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포부와 리상,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농사일에 자기의 한몸을 다 바쳐 로적가리를 높이 쌓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다.

그것이 곧 그의 삶의 보람과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제4절. 미래에 대한 락관

사람은 락천적으로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사는 보람을 느낄수 있다.

사기가 없이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사업과 생활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잃고 긍지와 보람을 느낄수 없다.

락천적으로 살자면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져야 한다.

락관이란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활기있게 해나가는 관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미래를 락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보다 래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래일을 위해서는 꽃나이에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피끓는 투사들입니다.》

혁명가는 미래를 락관하는 사람들이다. 혁명 그자체가 미래에

대한 꿈이나 새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미래에 대한 숭고한 리상을 가지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혁명가들이다.

미래에 대한 락관이나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애당초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지도 않았을것이며 설사 혁명의 길에 뛰여들었다 하더라도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관과 시련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것이다.

락관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다.

사업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관과 동요를 모른다. 비관은 난관과 시련앞에 겁을 먹게 하고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든다. 난관과 시련앞에 겁을 먹으면 주저앉게 되고 그것을 뚫고나갈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락관적으로 대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각오하고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수 있다.

락관을 가지면 난관과 시련을 헤쳐나갈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락관이 없이 난관과 시련앞에 겁을 먹고 동요하게 되면 열려진 문으로도 나가지 못한다.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가 되자면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여야 한다.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진 사람은 비관을 모르며 비관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한다.

사업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여야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오늘보다 래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것은 자기는 비록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것이다.

오늘의 락을 누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래일의 락을 위하여 투쟁하는 삶이 더 보람있는것이다.

사람은 저 하나의 락을 바라고 살아서는 안된다. 오늘의 락만 바라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으며 시대의 락오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삶은 오늘의 고생을 달게 여기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더 많은것을 창조하는 보람있는 삶이다.

조국의 부강한 래일을 위하여 오늘의 고생을 달게 여기는 사람만이 자기는 비록 락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수 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인생관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나가는 참된 혁명가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혁명의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는 《고난의 행군》시기 높이 발휘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우리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식량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우리 인민은 만난을 웃음으로 헤쳐나갔기때문에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혁명앞에는 의연히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우리는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을 웃음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배고플 때 웃으면 배고픈줄 모르고 힘들 때 웃으면 힘들지 않으며 어려울 때 웃으면 힘과 용기가 용솟음치는 법이다.

우리는 고난의 천리를 걸으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심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을 웃음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난관을 극

복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였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혁명처럼 노래로 엮어진 혁명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혁명적인 노래는 인민들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적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힘있는 무기이다.

혁명적인 노래는 총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생활을 더욱 더 락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혁명의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사람만이 혁명의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질수 있다.

죽음을 무서워하면 혁명을 할수 없다.

죽음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면 승리하고 비겁하면 패배를 면치 못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난관과 시련앞에 주저하게 되고 난관과 시련앞에 주저하면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게 된다.

혁명가는 죽어도 혁명을 하다가 값있게 죽어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는것은 투항과 변절을 의미한다.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다.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는가,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이런 신념, 이런 배심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나 승리한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은 우리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신념이고 배짱이다.

학생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님께서 일단 명령을 내리신다면 육탄정신, 총폭탄정신을 가지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죽음의 길도 서슴없이 택할줄 아는 불굴의 혁명투사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할 락관주의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배심을 가지고 미래를 락관하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높이 모신 여기에 우리 혁명의 오늘도, 휘황찬란한 미래도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언제나 마음 든든하며 그 어떤 대적도 쳐부실수 있다.

학생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든든한 배심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혁명적신념과 의지와 락관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3대특질,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품격을 이루고있는 3대요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도 서슴지 않고 걷는것이 혁명가들이며 설사 그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높은 각오를 가지고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사람들이 혁명가들입니다.》

복습문제

1. 혁명가는 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하는가.
2.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할 락관주의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무엇인가.

과외읽기

미래를 락관한 박길송, 손원금, 최희숙선생님들

항일혁명투사 박길송선생님은 적들에게 체포되여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기였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조국의 미래를 키워내는 요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기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습니다.》

항일혁명투사 손원금선생님은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화형을 당하는 순간 군중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남기였다.

《여러분, 나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산천이 환히 보입니다. 승리의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조선혁명만세!》

항일혁명투사 최희숙선생님은 소부대공작에 나갔다가 사령부를 찾아오던 도중에 그만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적들은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대다 못해 나중에는 그의 두눈까지 뽑아냈으며 심장까지 도려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웨쳤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최희숙선생님을 회고하시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혁명적락관주의를 상징하는 금언으로 되였습니다. 녀투사의 그 웨침소리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귀에 쟁쟁히 울리고있습니다.》

제5절. 직업과 영예

졸업을 앞둔 학생청년들은 앞날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된다. 군복을 입고 무기를 틀어잡은 자신을 그려보기도 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본때있게 하여 과학자, 발명가가 될 꿈도 가져본다. 또 어떤 동무들은 들끓는 사회주의농장벌에, 또 어떤 동무들은 기계소리 정다운 공장의 기대앞에 자신을 세워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체육인이나 예술가로 될 꿈을 안은 동무들도 있다.

졸업을 앞두고 학생청년들이 가지게 되는 꿈은 여러가지이지만 그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청춘을 값있게 살것인가 하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따로 있을수 없으며 무슨 직업이나 다 귀중합니다.》

직업이란 사회의 일정한 부문에서 맡아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사회의 일정한 부문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은 사회와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직업이나 나쁜 직업이 따로 있을수 없으며 모든 직업이 다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은 다 착취계급을 위한것이며 근로인민이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피땀을 빼앗기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은 어느것이나 사회와 인민을 위한것이지만 직업만 가지면 영예가 저절로 차례지고 빛나는것이 아니다.

영예는 사회와 집단에 기여하고 그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있다. 자기 맡은 초소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면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예이다.

영예는 자기 맡은 초소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어떤 초소에서 일하든 사회와 집단에 기여한것이 있다면 영예가 차례진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청년도로위생관리작업반을 무은 수도의

14명 처녀들의 생활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그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갈수 있었고 《먹을 알》이 있는 직장에 가서 일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도로위생관리원이 되여 눈비내리는 날이나 명절날이나 가림없이 수년세월을 하루같이 수도의 거리를 알뜰히 거두는데 바치였다.

그들이 한 일은 큰 발명과 같은 공적이거나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데 크게 기여한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였다.

그런 일을 스스로 맡아하는것은 깨끗한 량심을 지닌 인간들만이 할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여 그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는 최상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돈이나 재물은 영예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돈과 재물이 많아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된다.

영예는 사고파는 물건도 아니다. 사회와 집단앞에 쌓은 공적과 집단의 존경과 사랑은 사고팔수 없다.

사회와 집단에 이바지한 삶은 값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영예는 삶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값있게 산 사람들에게는 영예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없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한 공로가 크면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영예도 그만큼 크다.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존경은 사회와 집단의 평가이다. 가장 높은 평가는 수령의 평가이며 수령의 높은 평가를 받는것은 가장 큰 영예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면 그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최상의 영예를 안겨주신다.

한 《신발수리공일가》는 온 가족이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낡은 신을 새신같이 만들어주려고 지혜를 합치고 성의를 다바쳐 일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최상의 영예를 지니였다.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영예를 빛내이자면 우선 자기 직업을 사랑해야 한다.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가리는것은 낡은 사상의 표현이다.

또한 자기 맡은 초소에서 사회와 집단, 당과 국가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여야 한다.

맡은 초소는 있어도 편안히 지내며 일한것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조소와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예가 있을수 없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가장 값높은 영예는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것이다. 그것은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것이 조국과 인민앞에 가장 큰 공적을 쌓는것으로 되며 사회와 집단의 사랑을 받는 길이기때문이다. 영웅은 큰 공적을 쌓음으로써 인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며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

영웅은 누구나 다 될수 있다. 나이나 성별, 직업과 직위 같은것이 결코 영웅으로 되는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사람은 다 영웅이 될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혁명초소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청춘의 값높은 삶과 영예를 더욱 빛내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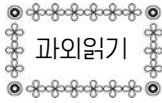
《지금은 제도가 좋아서 사람과 직업에 층하가 없고 누구나 공훈을 세우면 영예도 누리고 만사람의 갈채도 받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혁명을 위하여 꾸준히 일하는것이 곧 위훈이고 영예이다.》

복습문제

1. 왜 자기 직업을 사랑해야 하는가.
2.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것과 영예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과외읽기

농촌《기계화가정》과 《구봉령일가》

룡연군 룡호농장에 가면 온 나라에 《기계화가정》의 본보기로 소문난 5남매 가정을 보게 된다.

오늘 이 가정의 5남매는 아들딸들과 며느리, 사위들도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워 24명이 모두 뜨락또르운전수가 되였다. 그들가운데는 10명의 가정부인들과 3명의 처녀들도 있다.

가정부인들과 처녀들이 뜨락또르운전대를 틀어잡고 농촌기계화의 앞장에 선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남다른 소질, 남다른 꿈이 있었다. 또 도시처녀, 도시가정주부의 화려한 차림새나 생활을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하지만 수수한 운전복차림에 뜨락또르와 함께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맞으며 농장벌에서 우리 당을 받드는 농촌기계화초병이 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고 영예와 보람을 찾고있는 24명 농촌《기계화가정》,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인가!

지금 이들은 자기들을 키워준 당의 은덕에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보답하기 위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는 사회주의 농촌을 하루빨리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길에서 구슬땀을 다 바쳐가고있다.

자강도 성간군에 가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내세워주신 《구봉령일가》로 불리우는 도로관리원일가가 있다.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구봉령길을 쓸고 또 쓸며 가꾸어가고있는 이들, 누가 보건말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구봉령길을 지켜가고있는 이들이기에 오늘은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참된 애국자로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된것이다.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는가!

제6절. 우리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우리 인민은 력사적체험과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복인가 하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고있습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사람들의 념원이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것이 행복하게 사는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행복이란 사람들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되여 만족을 느끼는 생활이다.

사람들의 자주적요구, 바라던것이 해결되면 복이 있다고 하거나 행복하다고 한다.

사람들의 복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먹을것이 생기면 먹을 복이 있다고 하고 옷이 생기면 입을 복, 사람을 잘 만나면 사람복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많은 복중에서도 첫째로 꼽아야 할것은 사람복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이 사람이기때문이다.

사람복에는 명장과 훌륭한 스승을 만난 복, 은인을 만난 복, 좋은 동무를 사귀게 된 복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복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을 잘 만난 복이다.

개인은 아무리 뛰여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조선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아무리 애국사상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안중근은 할빈역두에서 조선침략의 괴수 이등박문놈을 쏴눕히고 체포된 후 사형장으로 나가기 전 감옥에서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피타는 갈망을 누를길 없어 마음속으로 절절하게 웨친다.

《나를 옳게 이끌어줄 그런 위인, 그런 영웅은 없구나. 5천년의 력사를 가졌으나…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줄 그런 절세의 위인을 한번 만나보았으면…아! 그런 영웅은 언제

나 나타나려는지?…》

참으로 탁월한 수령을 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념원이였다.

사람들이 누릴수 있는 복중에서 가장 큰 복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 복, 수령복이다.

탁월한 수령을 모심으로써만 나라와 민족은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으로 되는것이다.

운명을 구원해주고 그것을 지켜줄 위인, 탁월한 수령을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모심으로써 실현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심으로써 수령복이 있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운명,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참말로 우리 인민이 세기를 두고 념원하며 꿈꾸어온 그 모든것을 안겨주신 민족의 은혜로운 태양이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보살펴주시고 인생을 꽃피워주신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 행운을 지녔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써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력, 인민적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사상에서도 제일이시고 정치에서도 제일이시며 인간적풍모에서도 제일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드시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가장 위대한 세기의 위인이시다.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적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장군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신다.

최악의 역경에 처했던 전사, 숨쉬는 화석, 시들어버린 고목처럼 되였던 리인모선생님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영광의 언덕에 올라서게 된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이였다.

그러기에 리인모선생님은 《나의 운명을 두고》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

이런 행운을 두고
남쪽사람들은 말합니다
신화속의 《운명의 신》이
베풀어준 은총이라고

아니옵니다
저에게 행운을 주신것은
위대한 인간이신
은혜로운 **김정일** 당신이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였다.

이국땅에서 살던 한 어머니는 새로 일떠선 고층살림집을 받고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피를 바친 일도 없고 흙 한삽 변변히 떠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세 자식을 다 대학에 보내주었고 불구가 된 다리를 고쳐주어 제발로 걸어다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고대광실같은 집으로 이사오게 되였습니다.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이런 집을 쓰고 살자면 먹지도 입지도 않

고 벌어도 안됩니다. 그런데 돈 한푼 내지 않고 이런 집을 받았으니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수령복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이렇게 노래한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대원수님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 마음
…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은 곧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륭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말씀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50년동안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과 국가, 인민을 이끄시여 그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습문제

1. 왜 사람들이 누릴수 있는 복중에서 가장 큰 복은 수령을 모시는 복, 수령복이라고 하는가.
2.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것이 최대의 행복으로 되는데 대하여

제4장. 사회주의법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복무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복무법은 군사등록과 입대, 복무, 제대,배치와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지켜야 할 질서를 규정하는 법이다.

우리 나라에서 군사복무법의 목적은 군사등록과 입대, 복무, 제대,배치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민군사복무제를 원만히 실행하자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을 한목숨바쳐 보위하는것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의무로 된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군사복무를 하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크나큰 긍지로 여기고 그 길에서 청춘도 지어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가고있다.

이러한 우리 청년들의 절절한 희망과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에서는 전민군사복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초모나이에 해당되는 모든 공민은 군사복무를 하게 되였다.

전민군사복무제가 실시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가 온 사회에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군사복무과정을 통하여 사상정신적으로, 육

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랄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나이가 16살에 이른 공민은 군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군사등록은 군사복무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16살에 이른 공민이라면 군사등록사업에 빠져서는 안된다.

군사등록은 해당 시, 군(구역)군사동원기관에 한다.

직장을 옮기는 공민은 군사등록이동수속을 하여야 한다.

군사등록을 한 25살까지의 남성공민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18살까지의 녀성공민도 인민군대에 입대할수 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공민은 입대할수 없다.

언제나 성실하고 근면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공민만이 입대할수 있다. 그것은 군사복무가 집단생활이며 군사복무의 길에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도 있고 피로써 넘어야 하는 사선의 고비도 있기때문이다.

입대하려는 공민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인민군대에 입대하려는 공민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해당 시, 군(구역)인민병원이 한다.

해당 군사동원기관과 인민병원은 신체검사에서 발견한 공민의 질병을 제때에 치료하여 입대시켜야 한다.

군대초모사업은 도(직할시), 시, 군(구역)군사동원기관이 책임지고 한다.

입대한 공민은 배치받은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치받은 부대에 가지 않고 다른 부대로 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정기군사복무년한은 군사인원에 대한 수요와 초모대상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한다.

군사복무는 높은 자각성과 성실성에 기초한다.

공민은 맡겨진 군사임무를 자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사복무에서 위훈을 세운 공민에게 훈장과 메달을 비롯한 표창을 수여한다.

군사복무년한을 마친 공민은 제대된다.

로동행정기관은 제대된 공민의 배치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기군사복무년한을 마친 공민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어야 한다.

원군사업을 잘하는것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군사복무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식량, 피복과 같은 군수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군사복무와 관련한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은 정도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학생청년들은 군사복무법을 잘 알고 그것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군사복무의 길에서 청춘의 용맹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한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에서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공민의 복리와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할수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단위시간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맡겨진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경각성있게 지키며 로동보호규범을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로동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로동에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표창을 받는다.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들은 하루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그리고 일요일과 명절은 휴식할 권리를 가지며 그날에 일한 경우 대휴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받는다.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국가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의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법인것으로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로동법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로동법을 어기는 행위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영상을 흐리게 하는 해독행위이다.

학생청년들은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지켜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거주등록사업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은 공민의 출생, 거주, 퇴거 등록절차와 질서를 규정하는 법이다.

공민등록법은 공민을 장악등록하는데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미리 막고 제때에 적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민등록은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공민들은 살고있는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출생등록을 한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공민증을,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준다.

공민은 17살에 이른 날부터 15일안으로 공민증(평양시민증)발급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공민증과 평양시민증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자기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성한 권리를 인정받는 국가적증서이다.

공민증과 평양시민증, 출생증은 사는 곳의 인민보안기관이 낸다.

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 없다.

만일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분실리유를 제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공민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와 인민보안기관에 입대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정신병에 걸렸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였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거주하던 지역의 인민보안

기관에 바쳐야 한다.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얻은 공민은 곧 인민보안기관에 바쳐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기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여야 한다.

퇴거등록를 한 공민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대된 공민은 배치된 기관, 기업소가 있는 시, 군에서만 거주등록을 할수 있다.

이동작업, 실습, 아들딸과 친척의 병구완 등으로 다른 시, 군에 가서 3달이상 림시로 살려는 공민은 림시퇴거, 림시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군대에 복무할 나이가 된 공민의 퇴거, 거주등록은 군사이동수속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에 등록된 이름, 성별, 난곳, 난날과 같은 내용들을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름, 난날,난곳 등을 고치려는 공민은 신분을 고치는 허가신청서를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공화국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공민등록에서 없애버린다.

공민등록법을 어기고 공민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은 정도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학생청년들은 공화국공민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민등록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공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나가야 한다.

제4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1. 민법의 본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민법은 서로 독자성을 지닌 당사자들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제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서로 독자성을 지닌 당사자들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민법이 재산관계를 규제한다는것은 민법이 재산과 사람과의 관계가아니라 재산을 놓고 사람들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제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민법이 일정한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며 어떤 의무를 지니는가 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한다는것이다. 실례로 물건을 팔고사는 경우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와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지니며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을 권리와 돈을 물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민법은 모든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법인것이 아니라 서로 독자적인 사람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지시하고 지시받는 종속관계나 복종관계, 혈연적으로 련결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관계인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독자적인 사람들사이에 주는것만큼 받고 받는것만큼 주는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법은 사람들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한다.

서로 독자성을 지닌 당사자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민사적인 법률관계, 민사법률관계라고 한다.

민사법률관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유권이나 그밖의 독자적인 재산상권리를 가진 당사자들사이에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의무관계이다.

물건의 주인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빌려줄수 있을 때 그를 독자적인 재산상권리를 가진 당사자라고 한다. 이러한 당사자

들사이에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의무관계가 민사법률관계이다.

우리 나라에서 민사법률관계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사이에 이루어지기때문에 우리 공화국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사이에 이루어지는 민사법률관계를 규제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나선다.

민사법률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사실은 사건과 행위로 이루어진다.

사건이란 사망이나 뜻밖의 사고와 같이 사람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발생하는것을 말하며 행위란 계약을 맺는것과 같이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을 말한다. 실례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뜻밖에 몸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을 들수 있다. 이것들은 사건으로 된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는 사람사이에 상속관계라는 민사법률관계가 발생하며 뜻밖에 몸에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상처를 입힌 가해자사이에 손해보상관계라는 민사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계약을 맺는 경우를 들수 있다. 이것은 행위로 된다. 두 사람이 물건을 팔고 사는 계약을 맺는 행위로 해서 그들사이에는 팔고사기관계라는 민사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민사법률관계는 대부분이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를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민사법률행위는 민사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는 행위이다.

민사법률행위는 아무 사람이나 할수 없으며 오직 법에서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위이다.

공민이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공민의 나이와 정신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개별적공민은 17살이 되여야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그러나 로동을 하는 16살에 이른 공민은 로동보수를 받는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 자기 학년에 해당한 학용품을 사거나 해당한 물건을 사는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실례로 학생이 만년필을 사거나 책가방을 사는 경우, 얼음과자나 단물을 사먹는 경우를 들수 있다. 그러나 6살미만의 공민은 그 어떤 행위도 할수 없다. 민법에서는 17살에 이른 공민은 완전행위능력자, 17살에 이르지 못한 공민은 행위무능력자라고 하며 16살의 로동을 하는 공민은 부분적행위능력자라고 한다.

17살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자기 행위의 결과를 분별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정신병환자들은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법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이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수행되지 않은것과 같이 무효로 되며 거래한 물건들과 돈은 본인들에게 서로 돌려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직체인것만큼 그 자체가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위는 그에 망라되여있는 개별적사람에 의하여 수행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법률행위는 그에 망라되여있는 임의의 개별적사람이 할수 없고 오직 해당 책임자만이 할수 있다. 그러나 책임자가 한 민사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가 대표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법률관계에 나선다. 그러므로 책임자가 하는 모든 민사법률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법률행위로 된다.

2. 소유권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도 소유를 달리하거나 같은 소유이지만 경영상 독자성을 가지고 서로 대등하게 대하는 당사자들사이의 재산관계가 있게됩니다.》

소유권이란 일정한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자는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물건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마음대로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유권을 소유권자자신의 의사에 따라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는 권리라고도 한다.

소유권은 점유권, 리용권, 처분권으로 이루어진다.

점유권이란 물건을 차지할 권리이며 리용권은 물건을 일정한 용도에 쓸수 있는 권리이다.

처분권은 재산을 처리할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에 대한 점유권, 리용권, 처분권은 소유권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존재할수 있다. 례하면 물건을 보관하는자는 점유권만을 가지고 물건을 빌린자는 리용권만을 가지며 판매를 맡은 자는 처분권만을 가진다. 그러나 소유권은 점유권, 리용권, 처분권을 다 포괄하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우선 법에 기초하여 발생할수 있다.

례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국가소유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임자없는 재산은 그것을 공시한 다음 6개월이 지나도록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소유로 넘어간다.

소유권은 또한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할수도 있다.

례하면 팔고사기계약을 맺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면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권은 또한 그밖의 사건과 행위에 기초하여서도 발생할수 있다.

선물을 받거나 생활비를 받는것, 남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리용하는 과정에 얻어지는 재산, 사냥하여 잡은 짐승을 소유하는 경우들은 다 소유권이 일정한 사건과 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실례로 된다.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소유하고있는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비법적으로 소유한 자는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며 물건이 없거나 못쓰게 된 경우 그 대가로 보상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소유권자는 자기 소유권을 실현하는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것을 요구할수 있다. 실례로 한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팔려고 하는데 팔지 못하게 방해를 노는자가 있다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그만두도록 요구할수 있다. 방해행위로 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본 사람은 방해한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어떤 물건에 대하여 그것이 국가소유물인가 아니면 사회협동단체소유물인가 하는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물건은 국가의 소유물로 된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된 재산, 국가투자로 마련한 재산, 국가 기관, 기업소의 생산물, 국가 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 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각급학교 및 중요 문화, 보건시설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 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 리용,처분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들에 자기 소유의 재산을 주고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 리용, 처분하도록 한다. 이것을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기관, 기업소의 경영상관리권이라고 한다.

경영상관리권을 가진 기관, 기업소는 국가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점유, 리용, 처분한다.

그러나 경영상관리권은 반드시 국가의 지도밑에서만 실현된다.

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사회협동단체나 개인에게 넘어가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한 기관, 기업소에서 다른 기관, 기업소에로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경영상관리권이 넘어가며 그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가 가진다.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뜨락또르, 모내는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비법적으로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한다.

사회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수 있다.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여 법에 어긋나게 그리고 리윤을 목적으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없다.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

그러나 개별재산 즉 가정성원이라고 하여도 가정의 한사람만이 사용하는 재산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것을 알면서 가진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3. 채권채무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모든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공민들이 법을 지키는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공민들사이에는 경제거래관계가 있게 된다.

경제거래과정에는 서로 요구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의 관계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채무관계라고 한다.

다시말하여 채권채무란 그 어떤 물건을 넘겨주거나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상대방에게서 그 대가를 받을수 있는 권리와 물건을 넘겨받거나 작업을 봉사받은 대가를 물어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권리를 실현하는것은 채권을 실현한다고 하며 의무를 리행하는것은 채무를 리행한다고 한다.

채권채무관계는 민법상법률관계의 하나로서 경제거래과정에 이루어지는 권리의무관계이다. 다시말하여 채권채무관계는 한편 당사

자가 다른편 당사자에 대하여 거래와 결부된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편 당사자는 그를 수행할 의무를 지니는 법률관계이다. 례를 들어 두 사람이 팔고사기계약을 맺은 경우 물건을 넘겨준 사람은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물건을 받은 사람은 물건을 준 사람에게 물건값을 물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여기서 돈을 무는 행위를 수행할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자를 채권자라고 하며 돈을 무는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자를 채무자라고 한다.

채무를 리행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아도 채권자의 리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거나 채권자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리행을 제3자에게 넘겨줄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정된 채무자에게 지워진 채무는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넘겨주는 공간을 리용하여 리득을 보아서는 안된다. 실례로 200원의 작업봉사비를 받고 작업하기로 계약한 작업자는 작업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그에게 150원을 주고 작업하기로 그와 다시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이때에도 200원을 작업봉사비로 주거나 받도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채무는 채무자나 그가 내세우는 대리인이 리행하여야 한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것으로 하여 채무자가 더 입게 되는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공간을 리용하여 리득을 볼수없다. 례하면 가구제작비로 1 000원을 주고 가구제작자와 작업

봉사계약을 체결한자는 계약된 가구를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서 1 500원을 받고 넘겨줄수 없다. 제3자에게 가구를 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역시 1 000원을 받아야 한다.

채무는 계약에서 정해진 대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돈으로 채무를 리행하게 되여있으면 돈으로 리행하고 물건으로 리행하게 되여있으면 물건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를 리행하는 대상을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다시 합의하였다면 합의된 대상으로 채무를 리행할수 있다.

채무를 리행할 때 채무의 대상을 이루는 주되는 물건이 상대방에게넘어가면 그에 종속된 부속물건도 함께 넘어간다. 그러나 계약에서 주되는 물건만을 따로 분리하여 넘겨주게 정했다면 주되는 물건만으로 채무를 리행한다.

만일 종속된 물건도 넘겨받으려고 할 때에는 그 물건을 기본거래대상으로 하여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채무의 대상이 심히 손상되여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 당사자는 해당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실례로 자동차가 채무의 리행대상으로 되여있었는데 그것을 못쓰게 파손시킨자는 그 자동차값을 전부 물어주고 그 차를 자기가 소유하여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다.

채무리행과정에 값을 부당하게 적용하는것은 엄중한 위법행위로 된다.

우선 국정가격을 의식적으로 어긴 경우에는 그를 몰수하는 법적제재가 적용된다. 국정가격을 모르고 거래한것은 무효로 되며 본인들에게 서로 되돌려주지만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더 주고 받은것은 되돌려주지 않고 거래한 물건과 돈은 몰수되여 국고에 들어간다.

국정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상점에서 팔지 않는 물건의 가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이때 가격은 정해진 구역(례하면 시장)에서 허용된 가격에 국한시켜야 한다.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돈과 물건을 몰수하는 법적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합의가격으로 산 물건을 그 장소에서 다시 비싸게 파는 되거리장사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돈과 물건은 몰수된다.

채무리행에서는 계약에 지정된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의 질적조건을 어긴 경우 채권자는 리행받을것을 취소하고 그 값을 반환받든가, 그 값을 낮추든가, 다른 질적조건이 보장된것으로 교체하든가, 혹은 발생된 손해를 보상받든가 하는 행위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채무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나누어 리행하지 말고 한번에 다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를 근거없이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그러나 계약에 부분적으로 나누어 리행하게 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리행하면 된다.

채무를 계약에서 정한 기한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채무리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때든지 리행할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킨 채무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리행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든가 법이 정한 제재금을 물어야 한다.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는것을 제때에 접수하지 않아 채무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였거나 채무리행을 제때에 접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이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사건의 발생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되여있다.

4. 계약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공민들사이의 재산관계는 계약과 같은 민사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약이란 재산관계를 가지려는 당사자들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일정한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려는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다른편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한다.

계약은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계약은 말로 할수도 있고 글로 할수도 있다.

그러나 법에서 글로 할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글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이 일단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수 없다.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이 법적으로 맞게 맺어진 경우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법에서 강제적으로 리행하도록 한다.

계약에는 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이 있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이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에는 자재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농업생산물수매계약, 화물수송계약 등이 있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들은 모두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이며 국가의 계획적지도와 통제밑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이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계획에는 관계없이 필요한 때에 자기 의사에 따라 맺는 계약을 말한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국가가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인것으로 하여 의무성을 띠지만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인것으로 하여 자원성을 띤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에는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꾸기계약, 합동작업계약, 위임계약, 위탁계약, 보험계약, 은행대부계약, 저금계약, 려객수송계약, 교환계약 등이 있다.

법에서 그 거래를 금지한 물건은 팔고사기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다시말하여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고사기하는것을 내용으로 하여 팔고사기계약을 맺을수 없다.

물건을 파는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자만이 할수 있다.

작업봉사계약은 작업을 부탁받은 사람이 작업을 부탁한 사람에게서 받은 작업을 맡아수행하고 그 결과를 작업을 부탁한 사람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을 부탁한 사람은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물어줄 의무를 지니는 계약이다.

작업을 하는 사람(작업을 부탁받은 사람)은 작업대상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작업을 부탁한 사람이 준 작업대상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작업을 부탁받은 사람은 작업기일과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관계약이란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은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지니는 계약이다.

공민호상간에는 보관료를 주고받을수 없다.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은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 사람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이 책임진다.

보관하는 사람은 보관물을 보관시킨 사람에게 원상대로 돌려주

어야 한다.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보관한 사람이 책임진다.

빌리기계약이란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 사람은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공민호상간에는 빌려주는 물건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받을수 없다.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수 있다.

려객수송계약이란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려행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지니는 계약을 말한다.

운수기관은 손님을 려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이 손님을 태워갈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은 려행과정에 운수수단의 시설, 비품을 파손시켰거나 흠집을 내는 손님에게는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것을 요구할수 있다.

꾸기계약이란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는 공민이 꾸는 공민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경우 꾼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같은 액수의 돈이나 종류가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

공민들사이에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꾸기계약을 맺을수 없다.

공민들사이에 꾸기계약을 무상으로가 아니라 유상으로 맺는 경우 돈과 물건을 몰수한다.

공민은 꾼 돈이나 물건을 정한 기간에 갚아야 한다.

5.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사람들에게 국가의 법질서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강한 자극을 주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법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이란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이 자기가 지닌 민사적의무를 위반하거나 남의 민사적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상대방앞에 지는 재산적책임을 말한다.

민사책임은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사이에 설정되는 책임이다. 다시말하여 민사책임은 상대편당사자들앞에 지는 재산적책임이다.

민사책임은 민사상권리의 침해나 의무의 위반으로 하여 철저히 재산적으로 계산될수 있는 책임이다. 철직, 강직과 같은 인격적인 책임이나 로동교화형과 같은 인신적책임은 모두 행정처벌법이나 형법상의 책임으로 되지 민사책임으로는 되지 않는다.

민사책임에는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보상, 위약금이나 연체료와 같은 제재금,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이 있다.

재산반환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받게 된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된 경우와 비법적으로 재산을 점유하고있는자로부터 재산의 응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돌려받기 위하여 책임있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지우는 책임이다.

원상복구책임은 상대방이 계약상의무를 어기여 물건을 파괴, 변경,손상시키는 경우와 비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파손시킨 경우 그것을 원상대로 다시 복구시키도록 책임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우는 책임이다.

손해보상책임은 계약을 어기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비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파괴, 손상시키거나 남의 인체나 생명을 침해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에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지우는 책임이다.

위약금, 연체료지불책임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지우는 제재금지불책임이다.

법에서는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채무리행을 지연시킨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정한 가격으로 규정해놓고있다.

바로 일정한 가격에 따르는 민사책임을 위약금 또는 연체료지불책임이라고 한다.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책임은 계약상의무를 어긴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실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수송자가 날라온 짐을 짐임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관되여있던 짐에 대하여 짐임자의 청구권이 상실된다. 따라서 짐임자는 일정한 보관기일이 지난 짐을 수송기관이 주지 않는데 대하여 무조건 달라고 요구할수 없으며 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받을수 없다.

민사책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는 공민만이 진다. 중학교를 졸업한 공민이라고 하여도 자기 행위를 분별통제할수 없는 사람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인이나 정신병환자가 남의 재산을 파손시킨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책임은 그들의 부모나 그들을 교양, 감독, 통제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민법상의무를 어긴데 대하여 자기가 관리하고있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기관, 기업소가 관리하고있는 재산이 국가재산이라고 하여도 기관, 기업소의 민사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자기의 성원이 직무수행상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그러나 직무수행밖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지 않고 손해를 끼친자가 자기 개인의 부담으로 책임진다.

민사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이 다 지나도록 일정한 재산상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에 대응하는 해당한 의무를 진 사람에게 그 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재산상권리가 없어지는것을 말한다.

의무를 진 사람에게 그 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하며 시효가 지나 의무리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것을 청구권의 소멸이라고 한다.

시효가 지난 청구권은 법에 의해서도 실현되지 못한다. 다시말

하여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해줄것을 제기할수 없다.

시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계산된다.

례를 들어 물건을 빌려쓰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계약상의 재산반환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은 만일 리행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계산되며 리행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된 때부터 계산된다.

남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시효기간은 그러한 행위가 있은 때부터 계산한다.

시효기간은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에는 6개월, 기관, 기업소,단체와 공민사이, 공민호상간에는 1년이다.

민사시효는 일련의 사정이 있을 때 중단, 정지 및 연장된다.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을 처음부터 새로 계산하는것을 말한다.

법이 정하고있는 시효의 중단사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구권자가 재판이나 중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둘째로, 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승인한 경우이다.

시효의 정지란 법이 일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계속있는 동안에 시효기간을 계산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법이 정하고있는 정지사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판이나 중재소송을 제기할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 있을 때이다.

둘째로, 청구권자가 의무자에게 의무를 확인시킬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이다.

셋째로, 당사자 한편이 현역병사, 사관이나 전투상태의 군관인 경우, 청구대상이 상속재산인데 아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시효의 연장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정이 존재하는 동안에 시효가 끝나게 되여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연장하여주는것을 말한다.

시효정지사정이 존재하는 동안에 시효기간이 지나는 경우 그것

이 없어진 때로부터 시효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의무는 자발적으로 리행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의무는 없다. 량심상가책으로 하여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리행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접수할수 있다.

민사시효가 지났다는것을 모르고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리행한 사람은 시효가 지났다는것을 몰랐다고 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그러나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는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사회주의도덕과 법(중학교 제6학년용)

2 판

집 필 박사 부교수 허의명, 김천일 심 사 심의위원회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완선
편 집 최동녀 콤퓨터편성 조정임
장 정 류명심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1판발행 주체94(2005)년 5월 6일
2판인쇄 주체 년 월 일 2판발행 주체 년 월 일
교 값 원